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내달 착공

시, 조성 위한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풍경 담은 정원 · 초화언덕 숲 · 마당 품은 길 3개 테마 구성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 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조성될 '정원의 숲'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다음 달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뒤편에서 정원의 숲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시는 10일 시민의숲홍보관 및 사업 현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신현 전주시 총괄조경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경기장 전체 5개의 숲(정원의 숲, 미식의 숲, 마이스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중 가장 먼저 조성되는 '정원의 숲'은 야구장 옆 청소차량 차고지와 양궁장 이전 부지 약 8000㎡가 사업 부지로, 다음 달 착공돼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정원의 숲' 설계안은 전주의 시간과 시민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이곳을 기억의 정원이자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원의 숲 조감도.

정원의 숲 전체 공간은 크게 △풍경 담은 정원 △초화언덕 숲 △마당 품은 길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먼저 '풍경 담은 정원'은 시민의 숲 전체를 엮을 강한 축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들판정원과 거울연못, 바닥분수, 돌담길 등이 조성된다. 또한 풍경 담은 정원과 맞닿은 '초화언덕 숲'은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숲으로 조성되며, 비의 정원, 언덕이 있는 가든, 가로수길, 보라 정원 등으로 채워진다.

끝으로 '마당 품은 길'은 종합경기장 야구장에 조성되는 예술의 숲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며, 하얀 정원, 언덕길, 너른마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의 숲 1963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 '정원의 숲'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정원의 숲 외에 현재 예술의 숲과 마이스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도 이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야구장 본부석 자리에 들어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자체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며, 종합경기장 우측(북동측)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사업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조성 사업은 현재 편입부지 보상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종합경기장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 본격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면서 "정원을 시작으로 놀이 · 예술 · 미식 · 마이스의 숲이 차례로 조성되면 도심 속 숲 정원이자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서 자부심 높은 상징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행복한 시민, 상생하는 완산'

전주시 완산구, 구정 운영 5대 분야 15대 과제 제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등 구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10일 열린 완산구청 신년 브리핑을 통해 '행복한 시민, 상생하는 완산'을 슬로건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2년도 구정 운영 5대 분야, 15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분야는 △작은 불편도 소홀하지 않는 '소통공감'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나눔복지'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안전예방'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성장하는 '민생경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 등이다.

완산구는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에도 소홀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밀착행정 추진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믿음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속에 답을 찾는 '전 직원 행정의 날'을 실시하고,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조직된 'MZ 미래세대를 위한 직원 정책 아이디어 동아리'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는 또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나눔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항상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복지 실천 △저출산 · 고령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민관 협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분위기 조성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는 등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책 마련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과 점검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중 수시로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위한 골목협의체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및 상생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 △생태 하천 관리 강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완산구 만들기에 매진키로 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주정차 위반, 도로 적치물, 불법 광고물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구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하고 가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탄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24시간 운영

전주시보건소, 일반관리군 대상 병 · 의원 연계 비대면 진료 추진

전주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체계가 24시간 가동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집중관리군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을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토록 하고, 치료와 진료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보건소에서 병 · 의원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개편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와 먹는 치료제 대상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한다.

특히 보건소는 일반관리군을 위한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을 개소하고,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의료기관은 대자인병원(063-240-4601~2)이며, 재택치료자들이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063-250-8762)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재택치료 일반환자군 대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주지역 동네 병 · 의원은 현재 21개소로,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 · 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주시 누리집(http://health.jeonju.go.kr/index.jeon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는 행정민원 처리와 비대면 진료 가능한 동네 병 · 의원들과 연계하고, 일반관리군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해주는 등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및 재택치료 수칙안내를 위한 전주시보건소 상담센터(063-281-6293, 6294, 6353)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직원 16명이 근무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농업기반시설 대대적 정비 추진

전주시가 농로와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 농가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18억5500만 원을 투입해 농업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영농철(5월 초) 이전까지 △농로 14개소 △농수로 11개소 △소교량 1개소 개설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추진, 농가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농업생산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농로 정비사업의 경우 7억5000만 원을 투입해 용복동 신덕마을과 조촌동 암실마을 등 14개소의 2.5㎞ 구간에 대한 농로 확 · 포장을 추진한다. 시는 또 5억8700만 원을 들여 삼천3동 서지마을과 우아2동 삼거마을 등 11개소 1.9㎞ 구간의 농수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남정동 778번지 일원에 소교량을 신설하고, 각종 민원사항 처리에 따르는 긴급보수 예산 5억 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도 · 시 재해기금 1억3000만 원을 확보해 신동마을 미복구 제방사업 등 3개소 사업을 진행, 주민들과 농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송천도서관에 1인 미디어 제작 · 체험 기회 제공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전주시민들을 위한 책놀이터로 탈바꿈 중인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에 1인 미디어 제작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생겼다.

전주시는 공공도서관이 단순 지식정보 전달에서 지식문화콘텐츠 생산으로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시민들에게 미디어 제작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창의도서관(송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송천도서관에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을 함께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에 선정돼 송천도서관 3층에 미디어 창작실을 조성했다. 총 5000만 원이 투입된 이 공간에는 미디어 제작과 체험을 위한 카메라와 음향장비, 조명, 편집전용컴퓨터 등이 갖춰졌다.

송천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은 별도의 영상제작 장비가 없어도 창작공간을 이용해 미디어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송천도서관이 재개관하면 다음달 3월 이후부터 이 공간을 활용해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시민 미니 프리젠테이션 강연 △디지털 배움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체험을 원하는 전주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063-281-6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증대됨에 따라 변화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